

강연 1. 한국어 습득과 문화: 왜 문화인가?

강연 2. 한국어 교육과 문화: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하는가?

강연 3.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의 실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강연 1

2012.3.23. 16:00-17:30

한국어 습득과 문화: 왜 문화인가?

1. 언어의 사용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의 실제성과 유용성이, 언어 학습자가 놓인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의 '같음과 다름'의 해결이 중요하다.

1) 언어의 사용을 고려할 때 문화의 실제성과 유용성이 중요하다.

: 언어로 표현되는 한 집단의 인식과 관습의 문화적 양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 환경 및 맥락을 고려해야 함.

예1) 속담, 사자성어, 신조어 등 한 사회 및 집단의 문화가 반영된 관용 표현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또는 '짚신도 짚이 있다': 논농사 중심의 농경 사회인 한국의 농촌 생활을 반영한다. 이것은 과거 한국에서 '짚신', '낮' 등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필품이고 옛날 농경이 한국의 주산업이었음을 나타낸다.

'한류'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말, '국감(국정 감사), 과대(과 대표)'와 같은 줄임 표현 등도 한국 대중문화의 전파력, 빠른 삶의 속도와 같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

사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짚신', '낮'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의 속담은 옛날 한국 사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표현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이 있을 때 이해가 가능하다. 반면에 '한류' 등의 표현은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요구도 크다.

예2) 지하철

“지하철이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것은 1863년 영국 런던이었다. 세계 최초로 강 밑에 뚫린 도로인 템즈 터널이 개통된 지 20년 만에 도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지하철은 그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현재 지하철은 지구촌 160여 개 도시에 깔려 있고 약 7천개의 역이 있다. 서양에서 지하철을 가리키는 단어는 여러 가지이다. ....'subway'는 북미권.....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underground'라고 하면서 일상 대화에서는 'tube'.....영국과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metro'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개통된 지하철은 1974년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을 잇는 1호선이었다.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되던 무렵.....'영등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강 이북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서울은 전국 인구의 급속한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해 기존 서울의 도시 경계 안에서 더 이상 주거를 마련할 여력이 없고 교통 혼잡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은 만원이다 라는

비명이 울리고 있었고 강남 개발이 모색되고 있던 시기였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 뒤로 꾸준하게 증설해 온 서울은 지금 9호선을 건설 중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새로운 노선들이 깔리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하철 규모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고 하니, 실로 압축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된 교통 카드시스템, 역내와 차량의 쾌적함에서도 수준급이라 할 수 있다.”

“분주한 직장인들의 이동 경로/노인들과 실직자들의 부담 없는 처소..... 안내 방송에서 영어 공용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글로벌한(?) 공공장소, 서로에게 애써 무관심한 철저한 익명의 공간/‘개똥녀’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 삼엄한 감시망, 수백만 시민들의 안락한 교통수단/한순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시설, 동방예의지국 최후의 보루/성추행이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역.....”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 가운데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 시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셋 다 중요하지만 바로 마지막 정보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보는 지하철의 탄생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마지막 정보는 현재를 사는 한국인의 모습과 관계가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리된 지식으로 학습자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마지막 정보는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학습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노약자보호석’, ‘경로 우대’, ‘영어 지하철 안내 방송’ ‘개똥녀’ 등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한국인들의 삶의 양상, 삶의 좌표를 반영한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시 직장인들의 분주함, 일사불란한 이동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지하철 안 실직자와 퇴직자의 한가함, 노인 우대의 예의 등 다양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즉 이런 정보는 한국인들이 왜 출퇴근 시간 환승역에서 질주하듯 계단을 오르내리며 부딪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스쳐 지나가는지, 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 눈총을 받는지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다.(김찬호, 2007:23) 언어 교육 시 필요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사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이다.

2) 언어 학습자가 놓인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의 ‘같고 다름’이 중요하다.

한국어 교육 시에는 ‘한국어’가 영어와 달리 특정 지역어로서 낯선 언어이고 특히 한국은 낯선 나라이므로 정의적인 측면에서 문화 차이가 크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도 크다. 한국어 학습은 한국어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한국 또는 한국 사회의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해 없이 한국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 왕 샤오링의 경우

“솔직히 한국어학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한국이 38선 이남에 있다는 것과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다는 사실이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고, 심지어 한국어와 조선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오해할 정도였다.....산동성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라는 사실.....일어보다는 한국어를 위주로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실망을 했다. 특히 한국의 면적이 산동의 반에 불과하고, 한국의 경제 수준이 일본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 실망이 컸다.....”

.....우리는 **한국잡지와 비디오**를 통해서 한국이 깨끗한 나라,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활기찬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러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밤마다.... 알아듣기조차 힘든 KBS 제1**라디오**를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 해 가을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노란 은행나무가 늘어선 대학로에서 청바지나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그림**이었다.“(왕 샤오링, 2002:14)

왕 샤오링의 경우를 문화 이해 과정, 외국어 학습 시의 문화 습득 과정 및 이문화 수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 샤오링	문화 이해 과정 (신승환 외, 2006:10)	문화 습득 과정 (D. Brown, 1999: 214-215)	이문화 수용
(막연한 기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흥분과 도취	문화 차이
오해와 실망		문화 충격	
접촉(잡지, 비디오, 노래, 라디오)	문화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배려/만남과 소통	<b>문화 스트레스(회복 단계)</b>	문화 비교
즐거운 마음(한국어 학습)	갈등과 폭력의 해소		문화 이해
한국 동경	성숙과 깊이	문화 동화, 수용	문화 창조

표1.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이해 과정

위 표에서 보듯이 갈등과 폭력이 해소되는 지점, 문화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아가 회복이 되어가는 단계, 즉 문화 이해의 단계에서 한국어 학습이 즐거워진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야 문화 동화 및 수용 또는 제이문화습득이 되어 학습자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 창조, 이상적으로는 이중문화습득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상호문화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독자적인 수준의 문화 수용이 중요하다. 오늘날 경제 논리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국가 및 민족, 종교 간의 문제를 편견 없이 전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공동체의 파괴, 다채로운 각 지역 문화의 상실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세계성과 지역성, 문화적 다원주의를 통한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 2.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 1) 언어인가 언어의 사용인가

‘흰 쌀밥’을 단순히 ‘쌀로 만든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건강에 나쁜 식품’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길거리에서 가볍게 나누는 인사인 ‘밥 먹었니?’ ‘언제 밥 한 번 먹자’와 같은 표현도 ‘밥’을 음식 가운데 하나로만 이해해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오랜 기간 쌀 농사를 해 온 한국인들에게 주식인 밥을 챙겨 주고 함께 먹는 것이 상호 관계 지속 및 유대를

확인하는 행위가 됨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

## 2) 형태인가 의사소통인가

어휘, 문법 등의 형태 역시 그 형태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실제 의사소통 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보세요’, ‘여기요’와 같은 표현은 전화 통화 또는 음식 주문 등의 의사소통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사소통 상황은 한국어 사용 집단의 관습적인 사용 양상을 반영한다. 즉 왜 그런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이 문법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운 표현을 한국어 학습 초기에 배워야 하는 것도 형태의 습득 용이성보다는 ‘초면의 인사 표현’이라는 의사소통 시의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는 ‘이름이 뭐예요?’를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N1이 N1이다’라는 형태의 유용성과 ‘이름 소개’라는 기능 때문에 흔히 한국어 학습 초기에 교수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다.

‘어디 가세요?’, ‘어디에 가세요?’ ‘어디를 가세요?’와 같은 표현도 형태인 격조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할 때, 각기 인사 표현, 행선지 또는 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형식적 측면인가 사회적 맥락인가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 동사 활용 규칙 등 정확성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죽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표현도 의문문이라는 것만 알고 공식적인 스피치 또는 안내 방송 등 실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몰라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부분인 친족어, 존대법 등은 사회적 맥락 및 화용이 중요한 대표적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라는 호칭의 경우에, 며느리가 직접 부를 때에는 ‘아버님’으로, 남편 등의 가족과 대화 시에는 ‘우리 아버님’, 가족 외 다른 사람과 대화 시에는 ‘우리 아버님’, ‘우리 시아버님’, 윗사람과 대화 시에는 ‘저희 시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은 대화 상황, 즉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씨’는 한국에서 노동 계층을 하대하여 부르는 방식이므로 주의해야 하고, ‘성+이름+씨’, ‘이름+씨’는 각기 상대방과의 사회적 거리가 크게 달라짐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도 역시 이런 사회적 맥락 때문이다.

## 4) 언어인가 인간, 사회, 문화인가

언어만이 아니라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행동 등도 알아야 한다. 한국어로 인사를 할 때 어떤 상황인가,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간단히 손을 들기도 하며, 이는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승낙을 나타낼 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며, 어른과 대화 시에는 눈길을 약간 아래로 숙이고 어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등 특히 어른에 대한 행동 예절이 발달해 있는데 이를 알아야 의사소통이 순조롭다.

## 3. 상호문화적 능력

여러 언어 및 여러 문화의 접촉이 빈번한 오늘날, 외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 동화 수준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필요하고 이것이 상호문화적 능력이다. 외국어 학습 시 문화 비교 과정을 겪으면서 일방적인 목표어 문화 중심의 이해가 아니라 학습자 문화와 목표어 문화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기 문화를 존중 받는 분위기에서 낯선 문화를 접하므로 문화 충격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적게 하면서 목표 문화 접촉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문화 및 목표 문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편견 및 갈등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문화적 편견이나 갈등은 낯선 문화 속에 던져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인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극복이 가능하다. 즉, 상호문화적 능력이란 문화 충돌 및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문화의 내용이 아니라 문화를 보는 시각, 문화에 대한 태도가 문제임을 자각하고 열린 태도로 낯선 문화를 존중하며 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이다.

강연 2.

2012.3.24. 9:00-10:30

## 한국어 교육과 문화: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하는가?

### 1. 한국어 교육의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의사소통 교수법을 활발하게 모색하던 19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화 교육의 내용과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화란 무엇인가, 왜 문화를 가르치는가를 고민하였고, 문화의 개념과 교육 목표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문화를 이루는 내용을 열거하고 그 내용의 범주와 체계를 제안하였다. 주로 문화란 무엇이며 언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란 어떤 것인가, 문화와 언어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통합 등을 중심으로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 시 의사소통 능력 숙달을 위해 대문화가 아니라 소문화, 일상 문화 중심의 교육, '언어문화'의 필요성 등 실제로 필요한 내용 중심의 문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반면에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할 문화 항목 및 내용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한 후에 한국어 학습자 수준별 문화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로 기존의 초중고급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서 교재나 교과과정에 들어갈 문화 교육 내용을 범주화하고 그에 근거하여 항목을 수준별로 선정하고 배열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법으로 수준별로 문화와 언어를 통합하는 수업을 제시하였다. 최근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제이언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 사회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화 능력 수준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문화 능력 평가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언어 수업과 별도로 문화를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교사가 기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문화 교육 시 필요한 등급별 주제 목록을 추출하여 가르치고 있다.

#### 1) 문화교육의 내용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활발하고 왕성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가 개인 및 인류의 삶과 역사,

그 방식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언어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주제 및 내용이 있음을 열거하고, 주로 문화의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문화와 언어의 상관성’, 즉 문화가 먼저인가 언어가 먼저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언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

박갑수(1998): 언어에 의하여 형성된 문화 즉 문학과 언어의 배경으로서의 문화, 즉 단어나 문법에 투영된 문화

김대행(2003): (언어활동에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권오현(2003): 의사소통을 언어에 의한 의사전달에 한정하지 않고 언어, 행동, 자세 등의 복합 작용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의사소통 차원의 문화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실태, 그 배후와 결과 등에 관한 일련의 대상을 총칭.

민현식(2004): 언어영역에만 나타나는 문화현상(언어영역 중심의 제한적 관점)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문화영역 중심의 포괄적 관점)으로 분류할 때의 전자

조항록(2004): 언어에 의해 형성된 문화, 언어 속에 투영된 문화적 양상, 즉 협의의 언어문화와 광의의 언어문화가 있으며 전자가 그에 해당함.

최용환(2004a): 언어와 문화의 교집합적 특성으로서 언어에 내재된 신념이나 지각에 기반하는 사유 및 소통 행위의 과정을 보여주는 언어(행위)

왕한석(2005): 사회언어학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과 중첩되며, 언어문화는 현상/사실을, 의사소통 능력은 지식의 체계를 가리키나 이 둘 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수렴이 가능함.

김종철(2005): 언어 교육에 문화를 도입하면서 그 불가분의 관계를 일종의 융합 상태의 실재로 설정해 둘 필요성 때문에 부각된 전략 개념임.

김종철(2005):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화(언어문화)와 언어가 다루는 문화

조항록(2004a): 언어에 투영된 문화적 함의, “언어를 통하여 산출되는 문화적 양상”

## 2) 문화 교육의 방법

### 문화 수업 방안의 제시

김정숙(1997): 의사소통 모델과 언어-문화 통합 방안

한상미(1999):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수업

### 수준별 문화 수업의 예

조항록(1998, 2000): 초급과 고급 과정의 문화 교육 방안

이미혜(2004):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문화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한상미(2005): 비교법, 문화동화장치, 문화 캡슐, 문화섬, 인터넷, 참여 관찰, 관찰, 영상물의 활용 등 방법 제시

이 밖에 기타 비언어적 의사소통, 속담, 광고, 어휘, 영화, 문학을 활용한 교육, 화용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무엇이 문제인가

### 1) 언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문화란 무엇인가?

대부분 실제 수업과 무관한 이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다. 언어 교육 중심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즉 실제 언어 학습과 연계된 미시적이고 귀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외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이런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변화하는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이 문제이다. 문화학이나 사회인류학처럼 삶의 모든 국면과 변화까지 포함하도록 열어 놓고 보아야 하므로 가르칠 문화 내용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일상문화 또는 생활문화를 다루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삶의 맥락을 다루거나 살필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 2) 문화 내용, 문화 항목 목록이면 되는가?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정리할 때 보통 문화의 개념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에서 시작하여 문화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범주별, 수준별로 항목을 선정하고 배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개개 문화 항목의 목록은 나타나나 이런 항목들이 전달되고 소통되는 방식이나 맥락은 배제되어 있다.

즉 ‘한복’을 다룰 때 보통 “옛날 한국인이 입던 옷으로 요즘에는 결혼식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주로 입는다”는 설명과 한복 사진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복’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가치 부여, ‘한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개량 한복’이 아니고 ‘전통 한복’이라 부르는 이유 등을 이해시키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설명은 평면적인 목표 문화 지식이므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 및 가치와 현상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수를 하기 쉽고 자칫 이 정보가 잘못 된 경우에 문화를 잘못 소개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사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 교육 시에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가르치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런 변화가 동시대에서도 계층, 연령,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 과연 어떤 내용을 한국문화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할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미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정리해 놓은 문화에서 가르칠 내용 항목을 선정하는데 이런 정보는 시대를 넘어서는, 가치 있는 내용이므로 심중팔구 실제 생활과는 괴리가 있는데다가, 유용성과 실제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상문화의 내용을 다룰 때 이런 내용의 보편성과 신뢰성이 문제라면 소개하는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개개 삶 또는 의사소통의 장면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감지도구, 문화 캡슐 또는 문화주머니 등의 방법이 이런 예이다.

그리고 어휘, 담화 등의 언어 사용 시에도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시켜야 한다. ‘한복 차림’이라는 어휘가 함의하는 내용, 즉 정장, 옛스러움 또는 촌스러움 등을 알아야 이런 표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라는 말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인의 한복 사랑’ 같은 표현도 ‘한복을 사랑한다’는 것인지 ‘한복을 사랑하자’는 것인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휘, 담화 등의 언어가 사용되는 의사소통 장면으로 일상문화, 즉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한복’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개 문화 항목이 실제 소통되는 장면으로 나타날 때, 목표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및 문화 간 소통도 가능하다.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서 목표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일방적인 전달 및 주입식의 교육이 되기 쉬운 반면에 의사소통 맥락이 드러나는 장면 속에서 소개하는 문화는 학습자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평가하기가 쉽다.

### 3) 어디에서 가르치는가?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학습자가 어디에서 공부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가 풍부하므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학습자가 느끼는 문화스트레스가 커서 아예 한국어 학습을 포기하거나 좌절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학습자 자신의 문화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외국 즉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한국 문화 교육이 습득되는 속도는 느리나 문화스트레스는 거의 없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낯선 문화로서 거리를 두고 받아들일므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 및 자료 의존도가 높으므로 정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학습자 모국어로 접하게 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영상 자료, 정확한 설명 등이 유용하다.

그리고 문화 습득의 요구가 강하고 습득이 필수인 학습자 집단이 있다. 재외동포와 입양, 결혼이주민 등인데 전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후자는 사회 적응 때문이므로 한국인 수준의 제2문화 습득이 필요한 경우이다. 물론 재외동포와 입양의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고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 교육의 내용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3. 문화 교육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 시 문화교육은 외국어라는 측면과 의사소통이라는 측면 둘 다를 고려해야 한다. 즉 목표어 의사소통 숙달을 중시하되 언어 간 및 문화 간 소통의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어 교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인 인간은 낯선 사회와 문화를 만난다. 이때 목표어와 목표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 의사소통 수행자인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이 문제가 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어와 목표어 간의 갈등/소통, 자국 문화와 목표문화 간의 갈등/소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한국인, 한국 사회를 경험하며 읽어낸다. 아울러 한 지역의 외국인이며 보편적인 세계인인 스스로를 발견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독자적인 특성은 물론 세계에서의 위치 및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학습자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 역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특히 언어의 사용 맥락과 관계가 있는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만나는 지점일 목표어인 한국어에 대한 정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1) 한국어는 세계어인가?

“21세기 언어 경쟁 속에 남북 7500만 해외 550만 도합 8천만의 대국 언어이자 단일 민족어인 세계 13위의 한국어가 세계 문명사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민현식,2005:6)

“언어의 수요량과 언어 가격, 경제력, 소프트 파워, 공동체의 크기, 수용성 등을 볼 때 한국어는 세계어라기보다는 국제어라고 하는 것이 맞다”(김희숙,2002:165-169)

한국어를 지칭하는 말은 ‘국어, 지역어, 민족어, 일부 영역어인 국제어’라 정리된다. 이밖에 한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와 ‘조선어’가 있고 ‘연변어, 고려어’ 등 교포 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 즉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만나는 학습 대상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 북한에서 사용하는 조선어, 연변 지역에서 사용하는 연변어,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고려어가 있겠고, 이를 통칭하는 ‘한국어’는 한 국가의 국어이며, 한 지역의 지역어이고, 한 민족이 사용하는 민족어, 일부 영역에서 사용되는 국제어의 성격을 띤다.

## 2) 한국어 교육은 어때야 하는가?

“21세기 문화전쟁의 시대에 한국어의 위상 고양” 또는 “21세기 한국의 도약과 중흥에 따라 한국어도 이제 학문으로서나 실용으로서나 온 세계를 향하여 활짝 꽃 피울 날을 기대”하며, “국제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주제로 선도하기 위한 한국학의 하위 분야 발굴과 개척”이 필요하며, “이런 한국학의 문을 여는 것이 한국어 교육”(민현식,2005:5)

“한국어 교육을 국력 신장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려는 경향”을 벗어나 “문화간 의사소통으로 더 넓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확보하고, “상품과 정보 유통 시의 중간 이익의 절약”이 가능하므로 외국어 교육은 “유대감의 바탕 위에서 이익의 성을 쌓아주는 역할”을 한다.(김하수,2004:16)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관심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 및 유대의 대상으로서 한국,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 즉 한국의 세계 안에서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 예를 들면 번두리 국가 즉 제3세계 국가의 변화가능성을 보인 것이 한국이라면, 그런 변화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서구 선진 세계인 제1세계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면 그런 변화가 서구 사회 모델의 일방적인 추종인지 아니면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적대적인 공범”의 양상인지, 그도 아니면 제3의 새로운 길 찾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어 교육 시 문화 교육에서 고민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세계의 공동체적 유대감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의 실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1. 문화교육의 양상

표1. 문화 교육의 양상: 내용과 교육

내용	일반문화로서의 한국문화		지식 층위의 이해
	지역문화, 당대문화로서 의 한국문화	세계 타지역 문화와 한국문화 동아시아문화와 한국문화 개개 각국 문화와 한국문화	지식 + 시각(가치, 태 도) 층위의 이해
		과거, 현재, 미래의 한국문화	
교육	인식	문화 차이, 문화 갈등, 문화 충돌	학습자 문화 내 이해
		문화 변이, 문화 수용, 문화 동화	목표문화 내 이해
		문화 이해, 문화 비교, 문화 간 소 통	다문화적 이해
	교수법	문화교육론	

1) 내용

가. 일반문화로서의 한국문화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서울은 약 600년이 된 도시이다’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경우이다.

나. 지역문화로서의 한국문화

‘젓갈’: 동아시아 지역, 반찬/양념

다. 각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당대문화로서의 한국문화

‘밥과 김치’: 옛날 한국의 기본 식단, 현대 한국의 즉석 요리 및 대량 생산

예) “비빔밥은 옛 궁중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음식으로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비빔밥이 개발되고 있다.”

2) 교육

교육의 측면에는 낯선 문화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와 관계가 있는 학습자 문화 내 이해, 목표문화 내 이해, 그리고 문화 간 소통 그리고 교수법이 있다.

가. 문화에 대한 인식

(1) 학습자 문화 내 이해

한국어를 외국에서 배우는 경우, 한국문화를 낯선 외국문화로 자국 문화의 기준에서 이해, 정확한 목표 문화 이해와 목표 문화 수용이 쉽지 않음.

(2) 목표문화 내 이해

한국어를 한국에서 배울 때, 자기 문화를 지우고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됨.

(3) 문화 간 소통

적극적인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국인 수준의 한국어 구사,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가능함.

나. 교수법; 문화 내용과 목표, 문화 인식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술

2. 문화교육의 원리

1) 문화교육의 내용을 학습자가 신뢰하도록 하라

예) '홍익인간', '조용한 아침의 나라', 건국신화

2) 학습자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라

과정 중심, 학습자 중심, 과제 중심 또는 프로젝트 수업 등의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법 활용

3) 수업 시에 상호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라

상호 문화를 존중하게 하여 목표 문화 이해 및 자국문화와 목표 문화 간 소통에 이르게 함. 학습자가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 전에 준비하게 하거나, 수업 중에 목표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자료 예)

러시아인: 설날 뭐 하고 지낼 거예요? 집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한국인: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서 친척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요. 그 후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지요.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요.  
 러시아인: 그럼 저는 설날 떡국을 안 먹어야겠네요. 나이 먹는 거 싫으니까요. 그런데 세배는 누구나 다 해요?  
 한국인: 보통 세배는 아랫사람이 어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배를 받은 어른이 먼저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지요.  
 러시아인: 우리는 가족, 친지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게임을 한다든가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해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보기도 하고요.  
 한국인: 우리도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거나 TV를 봐요.  
 -연세 한국어 4 9과 명절과 축제<1>

3. 문화교육의 내용

1) 범위와 내용

표2. 문화의 네 범주

	과거	현재	기준
일상문화	한국 전통사회	현대한국사회	역사성과 당대성
예술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개학	한국문학 개론 및 한국문학사	통시성과 공시성
	한국문학의 특성	
역사	한국사 개론 및 한국통사	
	한국사의 특성	

그리고 일상문화, 예술문화, 문학, 역사를 각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3.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한국문화’ 평가 영역 및 내용 체계

(1) 일상문화: 의식주 생활, 경제/기술체계, 친족 관계, 교육체계, 정치체계, 일상생활 관련 의식체계, 의사소통 체계, 교통, 지리체계
(2) 예술문화: 예술, 사상 및 종교, 음악, 미술, 무용, 건축, 공예/도예, 매체문화(현대)
(3) 문학: 문학개론(문학사, 시대별 흐름, 장르별 흐름), 문학의 이해(장르, 주제, 작품, 작가, 특성)
(4) 역사: 한국사(통사, 시대별 역사, 지역별 역사), 한국역사의 이해(사건, 시기 및 시대, 인물 및 단체, 특성 및 정체성)

## 2) 수준별 내용

표4. 국내 대학 부설 교육 기관 정규과정의 수준별 문화 교육의 목표

급	목표	정리
1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	기본 생활 적응 문화 이해
2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고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급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한국의 예절과 풍습)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사회생활 적응 문화 비교
4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한국의 풍습, 미신, 속담 등)를 이해한다.	

5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 이해 및 소개 문화소통
6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의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표5. 분야별 한국어 문화 요소와 등급과의 관련성(조항록, 2004)

분류	초급	중급	고급
의식주 문화	◎	○	
역사 문화		○	◎
민속 문화		○	
사상 문화			◎
관념과 가치관		○	○
일상 생활 문화	◎	○	
제도 문화			◎
예술 문화		○	◎
문학		○	◎
기타			

○ 같은 분야 내에서 보통 수준으로 다름

◎ 같은 분야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름

표6. 수준 별 문화교육 내용(예)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한국인의 옷 한국의 식사예절 한국인의 상차림 생일, 명절 음식 한국의 집(현대) 한국의 수, 손가락으로 숫자세기 한국의 돈, 시장 가족 호칭 및 관계 한국인의 이름 한국인의 인사예절 생일 축하 한국의 공휴일(기념일, 국경일) 지역 예술 및 공연 휴대전화 주요 전화번호 전화 시작 발화 대중교통 한국의 지리 한국의 나라 이름, 국가, 나라꽃, 신분증 한글과 세종대왕	한복 건강 음식(인삼 등) 집들이, 이사 가계부, 은행 홈쇼핑 친척 한국의 학교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한국의 출산문화 한국의 명절 한국의 대중문화, 대중가요 경어법, 한국의 신체언어 휴대전화문화 지하철 노선도, 교통표지판 계절, 기후 한국 역사(인물)	전통 의상 김치, 장 담그는 법 한국의 전세문화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 현대 한국의 가족 한국의 지방행정 관혼상제, 백일잔치, 돌잔치 지역 축제 동요 주도(술문화) 관상, 돼지꿈, 12간지 한국의 신화 속담, 별명 대중매체 한국의 관광지 24절기 한국인의 종교생활 한국역사(사건)	유행, 패션 향토 요리 전통 가옥 외국인 마을 한국인의 경제 의식, 한국 기업, 한국의 기술 이웃사촌 한국의 가족제도 서당 한국의 정치제도 여가 문화 체질과 성격 한국의 민간 신앙 정월대보름, 단오 한자성어 인터넷 예절 한국의 유적지 교통문화 한국문학(현대) 한국의 사상 한국 역사(지역)	전통 예복 현대인의 식문화 주거 양식의 변화 개성상인, 보부상 직업풍속도 종친회, 향우회 선비, 과거제도 한국의 정치문화 분단 전통 혼례문화 옛날의 공휴일 3년상과 49재 현대 예술 한국의 호칭과 경어법, 궁중어 상소 한국의 지리적 위치, 대외 관계 한국의 문화재 한국문학(근대) 한국역사(시대)	한국의 산업 한국의 경제 한국의 첨단 기술 기부와 혜택 가부장제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국의 교육 한국의 정치제도 조선의 신분제도 한국의 외교 해외 봉사 전통 예술 한국의 무술 한국의 네티즌 문화 역마살/노마드 문화재 보호 한국문학(고전) 한국역사(통사)

이런 문화 내용의 성격을 알기 위해 범주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수준 별 문화교육 내용의 범주 별 분포

		초급	중급	고급
일상 문화	의식주 경제, 기술 친족 교육 정치 일상생활 관련 의식 의사소통 지리, 교통	현대, 과거 현대 현대, 과거 현대 현대 현대,과거 현대 현대	현대, 과거 현대 과거 과거 현대 현대, 과거 현대, 과거 현대	과거 현대 현대, 과거 현대, 과거 현대, 과거 과거 현대, 과거 현대, 과거
예술 문화	예술 사상, 종교 음악 미술 무용 건축 공예, 도예 매체(영상)	X X 현대 X X X X 현대	X 현대, 과거 현대 X X X X 현대	과거 과거 X 과거 X 과거 과거 X
역사	통사 시대사 지역, 집단별 역사 사건 시기, 시대 인물, 단체 특성, 정체성	X X X O X O X	X X O O X X X	O O X X O O O
문학	개론 시대별 장르별 장르 주제 작품 작가 특성 및 정체성	없음	X X O O X O O X	X O O O O O O O

한국인 수준의 문화 지식을 갖춰야 하는 학습자라면 위 표의 비어있는 부분도 교육을 해야 한다. 예술문화, 역사, 문학 등은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학습자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 4. 문화교육 방법

1)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경우

가. 수업 내용

: 교사의 설명, 특강, 시청각 자료의 활용, 문화 관련 과제 및 활동, 발표 등

방법	문화교육	한국어 학습
특강	한글	자모 익히기(초급)
	조선사회	신분제도(고급)
설명	가족 호칭	가족(초급)
	대우법과 대인관계 규범	존대법(초급)
	유래	사자성어, 속담(고급)
시청각자료	식당 장면 비디오	음식 주문하기(초급)
	입시생 인터뷰	대입제도(고급)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형제도(고급)
과제	가게 체험	물건 사기(초급)
	지하철 체험	교통(초급)
	유적지 답사	한국 역사(고급)
활동	한국인의 취미생활 조사 인터뷰	취미(초급)
	여행자-가이드 역할극	여행(중급)
	인터뷰	한국인의 여가 생활(고급)
발표	한국생활	하루생활(초급)
	한국의 쓰레기분리수거정책	자연과 인간(고급)

표3. 한국어 학습 관련 문화교육 내용 및 방법

나. 교재 및 교육 자료

(1) 대화

○ 문화 차이: 한국인-한국인

<p>&lt;대화1&gt; (상황 - 아는 분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분은 집 주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갑니다.)</p> <p>주인: 어서 오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p> <p>손님: 저, 이거.....</p> <p>주인: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p> <p>손님: 별거 아니에요.</p>
--



<대화2>(상황 - 집 주인이 손님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주인: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손님: 아니요, **괜찮아요.**

주인: 한 잔 드세요.

손님: 네, 그럼 차 한 잔 주시겠어요?

<잠시 후>

손님: 집이 참 좋네요.

주인: 집이 **좋은 한테** 교통이 좀 불편한 편이에요.

- 서강 한국어 3A(대화)

리포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1: 아, 예, 제가 작년에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발을 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셔서 당황했어요. 나중에 중국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사과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오해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사과할 때 웃으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리포터: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다른 학생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학생2: 저는 지난 학기에 **독일**에 교환 학생으로 갔었는데 그때 교수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수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 기분 나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른하고 이야기할 때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다른 가 봐요.

-서강 한국어 4B(듣기)

## 0 문화 소개

### <한국인-외국인>

미국인: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인: **윗사람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미국인: 아, 그래요. 또 다른 예절은 없어요?

한국인: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미국인: 재미있군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양손에 들고 먹어도 돼요?

한국인: 아니요, **왼손은 내려놓고 오른손만 써야 돼요.**

- 연세 한국어 2 제2과 한국음식 <4>

러시아인: 오늘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많이 떨리시죠?

한국인: 네,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돼지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요.

러시아인: 꿈에서 돼지를 본 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인: **한국에서는 돼지꿈이 길몽이거든요. 돼지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거나 큰 행운이 온다고들 해요.**

러시아인: 그렇군요.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면

한턱내세요.

한국인: 그럼요. 제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 연세 한국어 4 제7과 미신 <4>

<외국인-외국인>

일본인: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쓰나 봐요.

미국인: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인: 어제 어떤 사람이 길에서 저하고 부딪쳤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인: 그래요? 그 사람이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본인: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고 괜챤냐고만 계속 물었어요.

미국인: 그랬군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 연세 한국어 3 제7과 실수와 사과 <4>

외국인1: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외국인2: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외국인1: 하하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걸.

외국인2: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외국인1: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

외국인2: 하지만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 같은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국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1: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이지.

- 연세6 제6과 가까워지는 세계 <1>

○ 문화 비교

미국인: 내일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국인: 그럼요.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미국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보내려고요. 다음 달에 어머니날이 있고 6월에는 아버지날이 있거든요. 한국은 언제예요?

한국인: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 하루예요.

미국인: 왕영 씨 여기 자리 있는데 앉으세요.  
 중국인: 저는 안 앉을래요. 여기는 노약자보호석이잖아요.  
 미국인: 아까부터 피곤하다면서요? 빈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니까 그냥 앉으세요.  
 한국인: 그래도 이 자리에 앉으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미국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니어도 이 자리에 많이 앉던데.....  
 한국인: 물론 앉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원래는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니까 비워두는 게 좋아요.  
 중국인: 서양에서는 항상 여자들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한다지요?  
 미국인: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여자가 먼저예요.  
 한국인: 왕영 씨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인: 네, 그래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한국인: 한국에서는 특히 어른들께 그렇게 해요.  
 미국인: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한국인: 특별한 이유라고 할 것은 없고, 효 사상과 관련해서 그럴 거예요.  
 중국인: 효 사상이요? 효도는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국어 고급 II 제5과 철학과 윤리

(2) 과제

과제1 말하기

다음은 여러 나라의 6월 날씨입니다.

멕시코(라파스)	일본(도쿄)	베트남(하노이)	뉴질랜드(크라이스처치)
			
구름 조금	구름 많음	맑음	흐리고 비
37℃	27℃	15℃	5℃

1. 어느 나라 날씨 이야기입니까?  
 1) “선선할 거예요.” ( )  
 2) “따뜻할 거예요.” ( )  
 3) “조금 덥고 습할 거예요.” ( )

4) “아주 더워서 바닷가에 가면 좋을 거예요.” ( )

2. 위의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두 나라의 날씨를 비교해 보십시오.  
 <보기> 멕시코와 뉴질랜드 - 멕시코가 뉴질랜드보다 더 덥습니다.  
 뉴질랜드가 멕시코보다 습합니다.

1) 멕시코와 일본 -  
 2) 일본과 뉴질랜드 -  
 3) 베트남과 뉴질랜드 -

---

습하다 to be humid      바닷가 beach      더 more

**과제2. 쓰고 말하기**

1. <보기>와 같이 여러분 고향의 날씨 이야기를 써봅시다.  
 <보기> 한국의 날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은 3,4,5월이고 날씨가 따뜻하지만 바람이 좀 붓습니다. 여름은 6,7,8월입니다. 아주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7월은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입니다. 가을은 9,10,11월입니다. 시원하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겨울은 12,1,2월입니다. 춥고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합니다.

2. 여러분 나라의 계절과 날씨를 <보기>와 같이 비교해서 말해 보십시오.  
 <보기> 일본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덥습니다. 여름에 한국보다 더 습합니다.

---

장마철 monsoon season      눈싸움 snow fight

- 연세 한국어1 9과<3> 날씨와 계절

(3) 문화

○ 문화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방법	내용
설명 방식의 사용	문화 항목 설명(학습자 모어 또는 한국어) 사진 또는 그림 제시
돋출 창의 설정(tip) 및 단편적 기술	본문 옆에 간단한 설명(학습자 모어) 제시 그림 제시
문화 정보의 제시와 퀴즈	범주화한 문화 정보 퀴즈
문화 정보의 제시와 빈칸 채우기	문화 정보 비교하여 빈칸 채우기

표4.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의 제시 방법

설명 방식의 사용

한국의 봄꽃

한국의 봄은 노란색 개나리와 분홍색 진달래가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개나리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작은 별처럼 생긴 노란 꽃잎이 무리지어 핍니다. 그래서 개나리가 피면 갑자기 세상은 환하고 화사해집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개나리는 길가에 피는데 진달래는 산에 핍니다. 산이 진달래로 붉게 물들면 한국 사람들은 꽃구경을 갑니다. 진달래를 따다가 떡을 만들거나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진달래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 온 한국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미선이 말로는 한국에는 진달래에 관한 시나 노래가 많고 그런 노래에는 한국인의 슬픈 정서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유명한 시를 유행가로 다시 부른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슬픔보다는 슬픔의 힘이랄까, 한국인의 강렬한 열정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봄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개해 보세요.

일본 : 벚꽃

-[연세 한국어1] 9과 날씨와 계절

문화 정보의 제시와 퀴즈

인사예절

다음 설명 가운데 알맞은 것에 V 표시하세요.

- 윗사람과 인사할 때, 고개만 숙이지 말고 허리까지 숙인다.
- 아랫사람이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 함께 인사한다.
- 윗사람과 악수를 할 때, 반가운 만큼 크게 손을 흔든다.
- 윗사람과 악수를 할 때, 오른 손 팔뚝 옆에 왼 손을 붙인다.
- 윗사람과 악수를 할 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 윗사람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
- 윗사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
- 상대와 인사할 때 눈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예절1(구현정 외,2008, 이민자를 위한 한국사회 이해, 서울:정인출판사, 21쪽)>

한국 친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을 불러야 할 때 뭐라고 불러요?

- 1)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 2)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 3) 부모님의 성함을 불러요.
- 4) 기타: \_\_\_\_\_

<서강한국어4B1과 말하기III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해 보세요'>

문화 정보의 제시와 빈칸 채우기



대한민국  
 'Korea'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 흔히 '한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한민국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남한'은 무엇일까? 남한은 '남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뜻으로 한국이 북한과 나뉘어져 있어서 이를 구분해서 말할 때 하는 말이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시청할 때나 국경일에 집 대문 앞에 게양할 때 보았을 것이다. 하얀 바탕의 가운데 둥근 태극이 있고 네 모서리에 깨라고 하는 검정 무늬가 있는 모양이다.



한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7~10월에 피는 꽃으로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잎에 노란색 술이 나 있다. 사람들은 한국을 흔히 무궁화가 여기저기 곳곳에 피어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기도 한다.

1) 한국의 정식 국명과 국기의 이름, 나라의 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정식 국명	
한국 국기 이름	
한국의 꽃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1, 문화 5과>

0 문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급		6급	
	듣기	읽기	듣기	읽기
1	대중문화		교육과 미래	
과	영화	춘향전	평생교육	
2	민속과 삶		문화와 예술	
과	용의 상징, 결혼절차	집들이, 추석	판소리, 한국문화의 특질	밥
3	언어학습		역사와 유래	
과	언어와 문화		백제문화권	신화와 역사
4	개인과 가정		매체와 사회	
과	요리(전주비빔밥)	비빔밥의 유래 와 의미	지방 선거	
5	운동과 오락		철학과 윤리	
과		장기와 바둑	효와 경, 율곡 이이	'우리' 의식
6	기후와 여행		경제와 생활	
과		얼음골에 다녀와 서	색깔 마케팅	고령화 사회
7	과학과 기술		건강과 식사	
과		옛말의 과학성	다이어트 식사법	사상의학, 장수
8	이야기와 글		발표	
과		선녀와 나무꾼		수줍은 한국인, 설화

표5. <한국어 고급 I, II>(경희대) 교재 구성

다. 교실 환경

라. 교실 분위기

2) 교실 밖에서 가르치는 경우

가. 행사, 체험 활동

한국어 수준		행사	체험 활동	비고
기본 생활 적응 문화 이해	1급	한국 생활 말하기대회	교내/시내 견학	한국 소개, 자 료 전시 가능
	2급	한국노래 자랑대회	한국 요리 실습	
사회생활 적 응 문화 수용	3급	연극대회	사물놀이 배우기	
	4급	상황극 대회 (사자성어, 속담 관련)	한지 공예 배우기	
전문적인 이 해 및 소개 문화 소통	5급	퀴즈대회 (전문적인 내용)	탈 만들고 탈춤 배우기	
	6급	졸업좌담회, 문화 특강 (한국의 시사문제)	졸업여행 (유적 탐방)	

표6.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정규과정의 수준별 문화체험 활동과 행사

나. 교실 밖 환경

5. 문화 수업의 실제

1) 1급 수업: 한국인의 이름

교수 자료	교수 절차
-------	-------

<p><b>한국인의 이름(*L1)</b></p> <p>한국인의 이름은 보통 세 글자입니다. 한 글자는 성이고 두 글자는 이름인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지요. 그러니까 내 친구 ‘김 미선’도 성이 ‘김’이고 이름이 ‘미선’입니다. 이것은 미국과는 반대지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성씨가 자기 조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의 이름에서는 가족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미선 씨 말로는 이런 집안의 이름을 기록한 책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씨는 모두 270여 개인데 김 씨가 제일 많고, 이씨, 박씨, 최 씨의 순서로 성씨가 많습니다.</p> <p>아는 한국 이름이 있으세요? 씨 봅시다.</p> <table border="1" data-bbox="244 705 809 813"> <tr> <td>여자</td> <td>남자</td> </tr> <tr> <td>김미선</td> <td>이영수</td> </tr> <tr> <td></td> <td></td> </tr> </table> <p><b>어휘</b> 성과 이름</p> <p><b>대화</b> 리에: 안녕하세요? 웨이: 네, 안녕하세요? 리에: 리에입니다. (김미선, 오정희, ) 웨이: 저는 웨이입니다. (이영수, 정민철, )</p> <p><b>과제</b> &lt;보기&gt;와 같이 친구들과 인사를 하십시오. &lt;보기&gt; 김미선 : 안녕하세요? 이영수 : 네, 안녕하세요? 김미선 : 저는 김미선입니다. 이영수 : 저는 이영수입니다.</p>	여자	남자	김미선	이영수			<p>1) 도입 교사는 학생들 이름을 이용해 주제를 도입한다.</p> <p>2) 전개 (1) 모국어로 된 ‘한국인의 이름’을 읽고 아는 한국 이름을 써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2) 어휘에서 한국 이름을 제시하여 성과 이름을 구별하게 한다. (3) 대화를 제시하여 이름 부분이 어디인지 인지하게 한다. 따라 읽히고 짝 연습을 시킨 후에 제시된 이름으로 바꾸어 연습하게 한다. (4) 보기와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한다. 한국 이름을 하나씩 갖도록 해도 좋다.</p>
여자	남자						
김미선	이영수						

2) 2급 수업: 문화 차이 (강승혜 외, 2010: 269-271)

■ 수업자료

<그림>

**그림1**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 외국 학생이 다리를 떨고 있고, 한국 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그림2** 외국 학생이 빨간 색 분필로 이름을 쓰는 장면. 외국 학생은 칠판에 ‘김미나’라고 쓰고 있다. 한국 여학생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질문 카드와 활동지>

질문 카드

처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결혼했어요?”라고 물어봐도 돼요?
-----------------------------------



처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어도 돼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리를 떨어도 돼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어도 돼요?

식사할 때 밥을 젓가락으로 먹어야 해요?

식사할 때 코를 풀어도 돼요?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식탁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써도 돼요?

### 활동지

	이름	학생 나라에서 ---?	한국에서 ---?

### ■ 교수절차

**도입** 교사는 문화 차이 그림을 이용해서 주제를 도입한다.

- 전개**
- (1) 교사는 질문 카드와 활동지를 이용해서 문화 차이 조사 방법을 제시한다.
  - (2) 교사는 질문 카드와 활동지를 각 학생에게 한 장씩 배부한다.
  - (3) 학생은 문화 차이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 (4) 조사 활동을 마친 후 모둠을 지어 조사 결과를 토의한다.
  - (5) 교사는 일상의 행동에서 문화 차이를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 (6) 학생은 자신이 관찰한 문화 차이 행동을 발표한다.

- 마무리**
- (1) 교사는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 행동을 정한다.
  - (2) OX 게임으로 학습을 평가한다.
  - (3) 숙제를 알린다.(문화 차이 리스트 작성하기)

3) 4급 수업: 문화 차이(강승혜 외, 2010: 280-282)

- ◎ 대상 학습자 4급 다국적, 12명
- ◎ 소요 시간 50분
- ◎ 학습 공간 멀티미디어 교실
- ◎ 방법 방송 인터뷰 듣기, 경험담 발표하기
- ◎ 목표 문화적 - 상호작용 방식에서 문화 차이를 발견한다,

- 동일한 상호작용 행동에 대해 문화권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함을 인식한다.

- 한국인의 상호작용 행동을 학습한다.

언어적 응대하기, 설명하기

◎ 준비물 문화 차이 그림, 음성 녹음 자료, 듣기 대본

### ■ 수업자료

그림1 하숙집에 도착한 서양 학생이 트렁크를 거실 입구에 둔 채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온다. 하숙집 아줌마가 놀라서 손을 내젓고, 서양 학생은 어리둥절해 한다.

그림2 교실에서 외국인 선생님과 외국인 학생들이 모두 웃는 모습, 한국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듣기 대본>

리포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 갔다가 문화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1 : 아, 예. 제가 작년 2월에 중국으로 여행 갔을 때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 발을 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나중에 중국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사과해서 아저씨가 오해한 거래요. 중국에서는 사과할 때 웃으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리포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군요.

(중략)

리포터: 계속해서 다른 학생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학생3 :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teacher!”라고 불렀는데 그 선생님께서 “yes, student!”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리포터: 언어마다 사람을 부르는 방식도 다 다르지요. 그래서 외국어 배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만나 보겠습니다.

학생4 : 제가 프랑스에 여행 갔을 때의 일인데요. 한번은 안내소에 들어가서 길을 물었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이 기분 나빠하면서 먼저 인사부터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안내소 같은 데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거의 안 하잖아요.

리포터: 그렇죠. 안내소를 방문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것도 문화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서강 한국어 4B 1과

### ▶ 교수절차

**도입** 교사는 그림1을 이용해서 문화 차이 주제를 도입한다.

**전개** (1) 교사는 그림 2를 이용해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2) 학생은 듣기 자료인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문화 차이 경험담을 듣는다.

(3) 학생들은 들은 내용에 대해 토의한다.

“프랑스 관광 안내소 직원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관광 안내소 직원이 여러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날마다 만나니까 문화 차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4) 학생은 모둠으로 나뉘어 문화 차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5) 교사는 한 두 사례를 선택해서 전체 토의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1) 본 시간에 학습한 문화 차이를 정리한다.

(2) 질문으로 학습을 평가한다.

(3) 숙제를 알린다.(문화 차이 경험담을 주제로 조언하는 글쓰기)

**\* 관련 문헌**

강승혜, 김성희, 박성태, 임형재, 최주열, 황인교(2010), <한국문화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온라인 강좌 ‘한국문화교육론’ 강의 원고(황인교, 2010)